

내년 30주년 맞는 불교진흥원, 후임 이사장 선임·향후과제

지원 확대·사업 전문화 ‘한목소리’

8월 24일 서문각 이사장의 타계로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승희 직무대행’ 체제로 갈지 새 이사장 선임할지 관심

현재 진흥원은 정관에 따라 가장 연장자인 홍승희 이사(성곡문화재단 이사장)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오는 9월 말경 열린 진흥원 이사회나 간담회를 앞두고 새 이사장 선출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문각 前 이사장 시절 운영전반을 도맡으며 후임 이사장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에 대한 이사장직 승계도 현재로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이사들은 송 이사장 최근에 있었던 불교방송 사장선임과 동국대 교비전용문제를 이유로 이사장 선출에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사가 이사장을 맡든지, 홍승희 직무대행이 전인 서 이사장의 남은 임기 3년을 채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새 출발을 기약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의 새 체제의 준비는 시급한 실정이다. 또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진흥원과 새

이사장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그런 만큼 새 이사장에 누가 선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진흥원이 1대(구태회, 75~80년), 2대(홍산덕, 80~89년) 1기 관선이사 체제와 3대(장상문, 89~92년) 창건주 가족 및 4, 5, 6대(서문각, 92~2004년)에 이르는 2기 정립시기를 거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3기 체제를 맞는 만큼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교계 열망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불교계에서는 ‘불교진흥’이라는 진흥원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진흥원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현실안주’라는 평이다. 이는 진흥원이 설립초기부터 자사의 유지관리에 치중해온 데서 기인한다.

설립이후 자산 유지관리에 치중 교계 지원예산 연 2억원 불과

예산의 활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증감도 한몫한다. 87년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하고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교계 단체에 대한 지원도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90년 불교방송이 설립되면서 진흥원 예산 50억 중 지원예산인 목적사업비의 약 80%인 8억여원이 매년 불교방송으로 투입되고 있

는 것이 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진흥원의 교계단체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흑자를 구현하고 있는 불교방송의 독립도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IMF를 거치며 단체 및 학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교계에서 바라보는 진흥원의 위상도 변화가 생겼다. 자체사업 확대도 관리비 및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면서 교계로 지원되는 예산은 2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업 추진부분도 다시 검토해봐야 할 과제다.

90년대 초 과산 다보수원원 등의 설립에 40여억원이 투입된 것을 비롯해 매년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교계의 활동도 면에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15~20여억원이 소요되는 양주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계획이 타당하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불교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진흥원이 재정을 이유로 약간씩 지급되던 교계의 포교지원비 및 학술지원비까지 끊은 마당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대규모 불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보화 사업등 불교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고, 지원하는 등 불교계 전반에 활력을 주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15억 이상 드는 양주 불교체험관 건립 타당성 의문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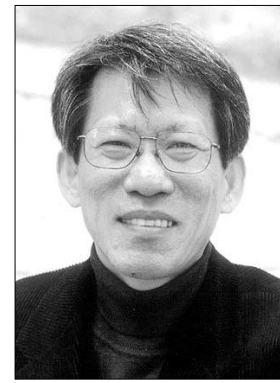
결국 불자들은 대표적인 교계 재가불교 지원재단인 진흥원이故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진흥’에 더욱 힘써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군장병 소장학사등 불교인재 양성과 해외포교등 한국불교계가 풀지 못하고 있는 막중한 포교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진흥원이 해야 할 가장 합당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불교계의 한 관계자는 “진흥원은 재가불교계의 대표적 지원재단으로 30년동안 교계단체 지원, 군불교 지원, 불교학자 양성, 청정운동 전개, 재가불교 활성화, 교양대학 운영, 불교문화센터 운영 불교발전에 큰일을 해왔다”며 “진흥원이 내년 30주년을 맞고 새 이사장이 선임되는 시점에서 불교진흥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재가불교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보존-연구-활용’ 균형 잡겠다

인터뷰 유홍준 신임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이 일반 행정관리를 뛰어넘어 연구와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큐레이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문화재 행정의 제일 과제인 보존에 치우쳐온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비판 전에 적절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유 청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까닭은 그간 보여 온 진보적 성향과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열정 때문이다. 유 고수가 문화재청을 개혁하고, 내실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초석을 놓아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없다”며 “하나하나 검토해나갈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또 남북간의 문화재 교류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민족간 동질성을 확인하는

“문화재청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개혁할 것이다. 기존 틀에 얽매일 생각은 없다”

9월 3일 임명된 유홍준(55) 신임 문화재청 청장은 문화재청 개혁과 정책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유 청장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문화유산 답사 붐 일으키며 문화재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인물. 행정관료로 독식해오던 문화재청 청장에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 청장은 9월 2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화재란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근원인 만큼 문화재 정책은 중요하다”며 “밖에서 문화재를 공부하던 입장과 안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체적인 문화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보존·연구·향수(享受)라는 세 측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오히려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현행의 보존 위주의 관리체에서 탐구, 문화재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유 청장은

박익순 기자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980년에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다. 홍익대·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대 한국인종미술학회 공동 대표를 맡는 등 문화계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85년부터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91년 영남대, 2001년부터는 명지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나의 북한문화유산답사기>, <원당평전> <해인연전> 등이 있다.

천성산 전문가 검토 난항

철도공단 불참, 첫 회의 무산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환경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의 미온적 태도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철도공단을 협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불교계와 환경단체, 환경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8월 26일 합의한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철도공단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환경부 역시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별다른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룡봉 소송 중단’ 100만인 서명 범불교대책위(이하 범불교대책위)는 이에 대해 “9월 1일로 예정된 전문가 검토의 방법·절차·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한 첫

회의가 공단 측의 무성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범불교대책위 측 관계자는 “대안지침공화회개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단의 원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줄 예상한 바”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을 스님이 청와대 앞에서 58일간 단식하며 일어난 성과인 정부와 철도공단의 ‘전문가 검토’ 약속의 실현 여부는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다.

‘도룡봉 소송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먼저 환경부가 철도공단을 설득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환경부장관 면담을 이미 신청했다.

시민행동은 9월 2일 집행부 회의를 열고 범불교대책위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 계획을 조정했다.

강유신 기자

기독교인 법당 난입 불상 두 동강



부산 장림동의 용수암의 법당내 야미타불이 두 동강 나는 훼손사건이 일어났다.

8월 26일 오전 7시 15분경 기독교인 정현호 씨가 법당에 난입, 불단위에 올라가 삼존불 중 야미타불을 바다로 밀어 불상이 머리과 몸통으로 두 동강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현장에서 붙잡힌 정씨는 장림 2동 서진교회 신자로 정진장에 2급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되지 않아 풀려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사가 설교 중에 불교에서 모시는 부처님은 우상이고 그 우상숭배 때문에 IMF도 왔다고 해서 우상을 제거한 것뿐”이라며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불교연합회 관계자는 “이 같은 훼손 사건은 관산자 개인의 문제로 처벌돼 넘어가지만 사실 심각한 현상이므로 부산불교연합회 회의에서 상정, 불교계 전체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천미희 기자

직지 탄생일 선포식 열려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3주년을 맞는 9월 4일,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박종일) 주최로 ‘<직지> 탄생일 선포식’이 인쇄정보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지정 선포된 <직지> 탄생일은 1377년 8월 19일로, 1377년의 백중이 해당한다. 박종일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직지> 탄생일 지정은 인쇄문화의 뿌리 찾기가”며 “불교계는 물론 정부와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직지> 하권 말에는 ‘宣光七年丁巳七月日’로 돼있어서 그동안 1377년 8월에 인쇄된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박익순 기자

정도회, ‘빙그릇 운동’ 추진

정도회가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빙그릇 운동’ 등을 펼친다.

정도회는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 안 남기기 10만인 서약 캠페인 등 ‘빙그릇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9월 2일 밝혔다.

정도회에서는 이를 위해 9월부터 서울대구 부산 등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1천명 회원들과 함께 직접 서약을 받는 거리캠페인,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환경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연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 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대학장 활안(한정섭) · 대학원장 호암(김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의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4년 8월 31일 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결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한국 불교 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의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